

# 兒童養育側面에서의 住居空間의 適合性 評價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Housing Fitness for Child Rearing and Development

연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林美淑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 수 李環會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Senior Researcher : Mi, Sook, Yim

Dept. of Architectural Eng., Yonsei University

Professor : Kyung Hoi, Le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문헌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obtain an empirically - based understanding of the attitudes of those children and mothers living in three different housing types : detached houses, row houses / villa and apartments.

The subjects are 547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the fourth, fifth and sixth grades and their mothers in four different residential areas, Seoul.

Followings ar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 1) Mothers put the first priority on the convenience of the dwelling space from the educational point of view, and they make complaints about their present dwelling space, in particular, children's play and storage space and the size of children's room.
- 2) They care a lot about the size of housing and, if the size of the housing is held constant, the mothers living in the apartments have more complain about.
- 3) The difference in the way children and mothers regard their dwelling space is great. The mothers would like to draw a clear line between rest space and play space. They would like to see their children play in their rooms, but children want

to make use of the whole space of their housing for play.

4) Mothers think that the children's rooms should be used primarily for study while children think that their rooms have multiple uses such as studying, resting, and playing.

## I. 서론

아동은 여러 部類의 사용자들 중에서 공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住空間은 아동의 행태를 수용함은 물론 교정할 수도 있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아동은 經濟的·社會的 能力이 없는 가장 불리한 사용자 집단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도 자신의 空間創造에 관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아동들이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공간환경이 종종 그들의 要求나 意思에 부합되지 않고 있으며 성인을 위해 계획된 환경은 아동이 평생 지니게 될 習慣과 視角을 형성하는 환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Michelson 1980). 최근 출산율이 감소하고 核家族가 심화됨에 따라 아동에 대한 關心이 고조되고 있으며 아동의 발달과 교육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 便乘하여 아동을 고려하는 주거공간 계획에 대한 요구가 增大하고 있다. 또한, 주거공간 계획에서 아동의 요구뿐 아니라 어머니의 요구까지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霧圍氣를 조성할 수도 있다 (Duvell 198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고려하는 주거계획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아동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어머니들에 의해 認知되는 아동양육 측면에서의 주거공간의 적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주생활 행태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간의 시각차를 파악함으로써 空間 使用者인 아동과 空間 提供者인 어머니 의견을 비교·분석하여 兒童 養育과 兒童發達에 적합한 주거공간계획의 지침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문헌고찰

物理的 環境에서의 아동에 관한 연구는 환경과 행태에 관한 연구가 活性化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전의 연구는 대개 대학실�험실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아동의 實際生活 환경의 중요성이 간과되었으며 이 당시만해도 아동의 存在가 중요하게 인식되지는 않았었다 (Chawla 1991). 이후 산업사회에서 出生率이 감소하여 각 가구당 아이 수가 적어짐에 따라 아동의 존재가 浮刻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便乘하여 環境心理學 分野에서 아동발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하여 아동은 生活環境에 따라 행동하며 아동의 생활환경은 아동발달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결론을 導出하면서 (Wohiwill 1980)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동을 연구하는 연구자나 조사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아동의 視角과는 항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아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아동이 견해에 있어서 질적으로 均衡을 이루고 있어야 하며 조사자와 아동의 觀點, 양측에서 얻어진 데이터의 수집이 요구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 면접하는 동시에 부모나 선생, 이웃 등의 成人들에게 질문하는 방법도 資料收集의 어려움이 많은 아동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동의 주거환경은 아동의 態度와 行動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환경이므로 가장 중요한 아동의 물리적 환경이다. 아동이 집하는 환경을 가정, 학교, 사회환경으로 구분할 때 人間形成이라는 관점에서 가정환경은 학교환경이나 사회환경에 비해 보다 강한 영향을 지닌다. 또한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아동이 공간적 定位를 발달시키는 生物學的 根據를 마련해 주며 주어진 환경에 대한 변화와 脫피가 어렵다. 그러므로 아동발달에 적합한 주거환경계획에 있어서

는 아동양육측면에서 주거공간을 고찰하는 것이 연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아동의 주거경험을 연구하는 데는 3가지의 주된 연구방법이 있다(Chawla 1991)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구방법으로는 騒音, 密度 등과 같은 가정에서의 환경인자의 刺戟水準에 대한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두 번째는 아동을 가진 가정에 대한 주거계획의 適合性을 조사하는 住居評價 및 選好度 조사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의미를 질적인 측면에서 연구한 예들이 있다.

저소득층 편부모의 住居知覺에 대한 연구에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養育, 管理, 安全性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Anthony 1990).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지각하며 아동을 중심으로 계획해야 하는 필요성은 아동 자신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滿足感을 줄 수 있는 계획방법이 된다.

부모와 아동이 갈등을 最小化하면서 공동의 또는 각자 행하는 사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족의 생활주기(life cycle) 단계마다 변화를 적합하게 수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계획이 요구된다(Chawla 1991).

부모는 그들의 아동이 주택내에서 孤立되어져 있다는 인식을 자주 하게 된다. 이 고립감은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여성과 아동을 남자들의 경직적인 세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安全領域에 위치시킴으로 일어나게 되었다(Franck 1985). 따라서 주택내에서 성별, 연령별 空間使用方式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고 아동은 집밖에서의 성인의 역할을 관찰하거나 分擔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짐으로 인하여 친구들과이나 사회와의 교류에 있어 부모들에게 依存하게 되었다.

가족들의 要求事項과 실제 住空間사이에 不一致가 인식됨에 따라 현재의 潮流는 실질적인 가족의 多樣性을 반영하는 주택계획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고층주거에 거주하는 주부들은 자녀를 감독하고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으며(Hkimstra 1978) 안전한 놀이공간의 부족을 지적하였다(Duvall 1981). 이와 같은 고층주거에서 아동 놀이의 문제는 아동의 安全과 직결된다. 놀이공간과 놀이시설의 부

족,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차량의 위험, 그리고 垂直動線에 의한 자녀 감독의 어려움은 자연히 주부들로 하여금 아동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의를 기울이고 過保護를 하도록 하여 아동의 행동을 制止하게 만든다.

이외에도 고층주거의 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 뿐만 아니라 신체와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文獻調査를 통해 밝히고 있다(Van Vliet 1980, 1983). 또한 국내의 연구에 의하면 고층아파트 주거 아동이 讀書能力은 높으나 정서성, 사회성이 낮다는 결과(김경희 1979)와 중·하류층 아파트에서는 아동의 個人生活保障이 어려워 아동의 건강 및 정서생활에 큰 문제가 된다는 指摘(최효선 1978)이 있어 아동에 대한 주거환경의 중요성을 認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3-1. 조사개요

“아동양육측면에서의 주거공간의 적합성에 대한 어머니의 평가는 어떠한가?, 아동의 주생활 행태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물리적 환경변인인 주택유형과 주택규모를 본 연구의 주된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유전적 성향이 강한 성별과 연령으로 구성되는 아동 특성은 설명변인의 역할을 하는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측면에서의 주거공간에 대한 평가와 아동의 주생활 행태를 인식하는 어머니의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思考와 언어적 표현 능력이 있는 국민학교 4, 5, 6학년 아동 547명과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547명으로 구성된다. 연구대상의 표집은 단계적인 군집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선정한 후, 地域差를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居住範圍가 공립국민학교보다 넓은 4개 사립국민학교의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서대문구의 H국민학교, 서초구의 SK국민학교, 중구의 K국민학교와 S국민학교를 위의 基準에 의거하여 選定하였다.

### 3-2. 調査 및 分析方法

#### 1)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개념의 측정방법은 기존의 先行研究를 기초로 하여 연구목적에 맞도록 補充하여 具體化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설문지는 독립변인인 주거유형과 주택의 일반사항, 아동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 兒童養育側面에서의 주거공간의 평가와 아동의 주생활 행태를 보는 어머니의 觀點을 조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아동에 대한 설문지<sup>1)</sup>는 住居空間에서의 발생하는 아동의 주생활 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주공간 유형 및 주거공간에 대한 認識程度와 사회심리적 측면에서의 주요구를 조사하여 어머니와의 시각차를 파악한다.

#### 2) 조사 방법

설문지의 내용이 조사 대상자에게 理解되는 정도와 구성상의 問題點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된 調査道具를 사용하여 1992년 4월 6일에서 4월 15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4개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4, 5, 6학년 중에서 각 반반씩을 無作為로 抽出하였으며 선정된 반의 담임 선생님께 의뢰하여 아동과 어머니용 설문지를 학생에게 배부하여 2일후에 회수하였다.

#### 3) 분석 방법

研究內容과 研究問題에 적합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分析技法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주거공간의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주거공간의 기능과 아동실 기능의 중요도에 대해 頻度를 파악하였으며 주거만족도에 대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주거유형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② 주거만족도의 영향요소를 파악하고자 주택의 일반사항과 아동양육측면에서의 만족도를 대상으로 段階的 多重回歸分析을 실시하였다.

③ 아동의 주생활 행태에 대한 어머니의 認識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의 주생활 행위공간, 집안일 선호 유형, 아동이 滯留하는 공간, 아동과의 對話空間, 아동실 활용정도 대해 독립변인과 교차분석하였다.

### 3-3. 變因 特性

#### 1) 물리적 환경변인

물리적 환경변인은 주택유형, 주택규모로 구성된다. 주택유형은 조사도구에서는 6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나 응답내용, 주택형식을 고려하여 분석에는 3개 유형으로 單純化시켜 적용하기로 한다.

住宅規模는 소규모(21 - 30평 : 26.0%), 중규모(31 - 50평 : 51.2%), 대규모(51평이상 : 22.8%)의 3개 유

〈표 3-1〉 조사대상의 주택유형

주택 유형	표본수	구성비(%)	주택 유형	표본수	구성비(%)
단독주택(1층)	58	10.6	단독 주택	186	34.0
단독주택(2층)	128	23.4			
연립주택	30	5.5	연립·빌라	70	12.8
빌라	40	7.3			
시중아파트	58	10.6	아파트	291	53.2
고층아파트	233	42.6			
계	547	100%	계	547	100%

1) 이 논문은 임미숙(1992), 주거유형에 따른 아동의 주생활 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로 아동의 주공간 사용방식과 주의식 및 주요구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었다.

형으로 구성된다.

2) 아동특성 변인

조사대상 아동의 性別 構成比는 남자가 287명(52.5%), 여자가 260명(47.5%)이며, 年齡別 구성비는 4학년이 34.0%(N=186), 5학년이 34.2%(N=187), 6학년이 31.8%(N=174)로 고르게 표집되었다.

3) 조사대상의 가구의 일반사항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표 3-2).

조사대상 아동의 父母年齡은 아버지는 35-39세가 26.9%, 40-44세가 43.1%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어머니는 35-39세가 58%, 40-44세가 24.5%로 이

年齡帶가 전체의 82.5%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조사대상의 생활주기가 初等教育期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자녀출생순위는 맏이가 54.7%, 가운데가 10.2%, 막내가 35.1%로 맏이가 가장 많았다. 가족내의 아이수는 2명이 65.3%, 3명이 19.4%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家口所得은 150만원-200만원이 26.7%, 200만원이상이 39.7%로 나타났다.

居住期間을 보면 표 3-3과 같이 주택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거주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표집한 조사대상 가구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 전체의 41.9%로 이동세대가 적은 家口選定을 목표로 한 표집의도가 성취된 것을 알 수 있다.

住宅經驗도 주택유형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

〈표 3-2〉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사항

항목	응답 범주	% (N)		항목	응답 범주	% (N)
부 모 연 령	30-34세	1.5( 8)	5.7( 31)	소  특	60- 80만원	1.7( 9)
	35-39세	26.9(147)	58.0(317)		80-100만원	4.8( 26)
	40-44세	43.1(236)	24.5(134)		100-120만원	8.6( 47)
	45-49세	17.2( 94)	7.1( 39)		120-150만원	16.8( 92)
	50세이상	7.0( 36)	.8( 4)		150-200만원	26.7(146)
학 력	대학원졸	19.7(108)	4.9( 27)	가 족 수	3 - 4명	54.2(296)
	대 학 졸	67.1(367)	60.5(331)		5 - 6명	38.6(211)
	고 졸	10.6( 58)	30.9(169)		7 - 8명	7.4( 40)
직 업	자 영 업	54.1(296)	13.5( 74)	출 생 순 서	맏 자 녀	54.7(299)
	전 문 직	13.2( 72)	7.7( 42)		중 간	10.2( 56)
	관 리 직	24.1(132)	1.1( 6)		막 내	35.1(192)
	사 무 직	6.9( 38)	1.3( 7)			
	주 부		71.7(392)			

〈표 3-3〉 주택유형별 거주기간의 분포

	1년 미만	1-2 년	2-3 년	3-4 년	4-5 년	5년 이상	계
단독 주택	11( 5.9)	20(10.8)	16( 8.6)	17( 9.1)	17( 9.1)	105(56.5)	186(100.0)
연립/빌라	9(12.9)	10(14.3)	13(18.6)	13(18.6)	7(10.0)	18(25.7)	70(100.0)
아 파트	23( 7.9)	32(11.0)	34(11.7)	55(18.9)	41(14.1)	106(36.4)	291(100.0)

N(%)  $\chi^2=34.03$  P<.001

〈표 3-4〉 주택유형별 주택경험의 분포

	단독 주택	연립/빌라	아파트	기타	계
단독 주택	118(63.4)	20(10.8)	41(22.0)	7(3.8)	186(100.0)
연립/빌라	29(41.4)	12(17.2)	29(41.4)	-	70(100.0)
아파트	63(21.6)	15(5.1)	209(71.9)	4(1.4)	291(100.0)

N(%)  $\chi^2=131.64$  P<.001

타내는데 단독주택에 살던 사람은 다시 단독주택으로, 아파트에 살던 사람은 다시 아파트로 주택유형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립/빌라의 경우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주택경험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립/빌라의 주택경험이 다른 주택유형보다 적게 나타난 이유는 이 주택 유형이 다른 주택유형보다普及年限이 짧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의 居住期間이 길고 住宅經驗이 同一하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의 측정은 매우 安定되고 信賴性 있는 결과라는 것을 假定할 수 있다.

#### IV. 연구결과 및 요약

##### 4-1. 아동양육측면에서의 주거만족도<sup>2)</sup>

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해 주거공간이 수용해야 하는 主機能에 대해 조사한 결과 育兒活動이나 家事活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便利性(47.0%, N=253)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결과가 나왔다. 그 다음으로 안전성(35.3%, N=190), 프라이버시(12.1%, N=65), 실내분위기(5.6%, N=30) 순으로 중요도가 표출되었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家事作業이 가사용품의 기계화로 많이 절감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많은 수의 주부가 힘겹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사노동이 가장 과중한 兒童養育期의 주부의 노동을 節減시킬 수 있는 주거계획이 요망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국민학교 4, 5, 6학년 아동

이 있는 가정으로 가족 生活週期가 초등교육기 가정 이 된다. 따라서 아동양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시기보다도 高潮되어 있는 시기이므로 아동양육 관점에서 주택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6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한 만족도는 각 항목에 따라 주택유형, 주택규모변인의 主效果와 두변인의 결합에 의한 相互作用效果가 발견되었다.

주택규모에 의한 만족도의 차이가 주택의 만족도와 가족모임 장소의 만족도에 각각 나타났다.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서로간에 만족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事後檢證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규모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4-1).

〈표 4-1〉 주택규모별 주거만족도 비교

주택규모	주택의 만족도			가족모임의 장소		
	Mean	S.D.	◎	Mean	S.D.	◎
소규모	3.09	.84	A	2.94	.92	A
중규모	2.65	.74	B	2.53	.83	B
대규모	2.41	.89	C	2.26	.73	C
F 값	24.32***			2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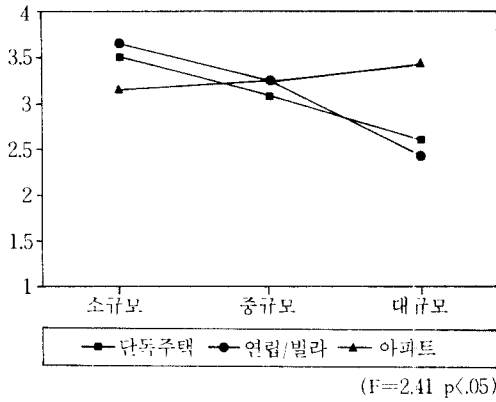
\*\*\* P<.001 ◎ 사후검증 (SCHEFFE 방식 적용)

아동실의 크기, 아동놀이의 장소, 아동실 위치에 대해서는 주택유형과 주택규모가 結合하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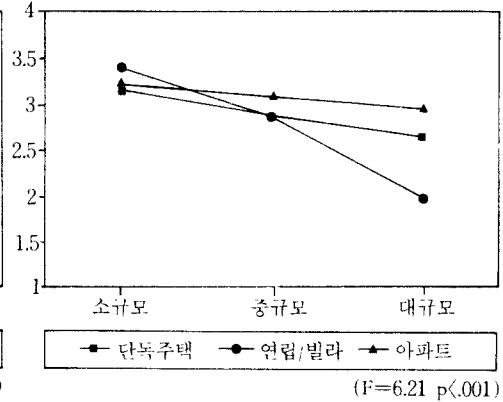
아동실 크기에 대한 만족도에서 규모가 클수록 만족하나 같은 규모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

2) 본 연구에서 측정은 1(매우 만족하다)에서 5(매우 불만족하다)까지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므로 낮을수록 만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림 4-1〉 아동실 크기에 대한 만족도



〈그림 4-2〉 아동놀이의 장소에 대한 만족도



머니의 반응이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에서는 다른 주택에 비해 普遍的으로 아동실이 주침실보다 크기가 매우 작은 것에 起因되는 듯하다.

또한 놀이장소에 대한 만족도에서 단독주택이 가장 만족스럽게 나타난 결과는 마당이 있어 아동놀이의 一部를 수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아파트에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규모 아파트일수록 居住家族의 生活週期 특성상 아동을 가진 家口가 적고 이에 따라 아동의 놀이를 위한 施設이 다른 규모보다 未洽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兒童室 位置에 대한 만족도 측정에서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응답에서는 中規模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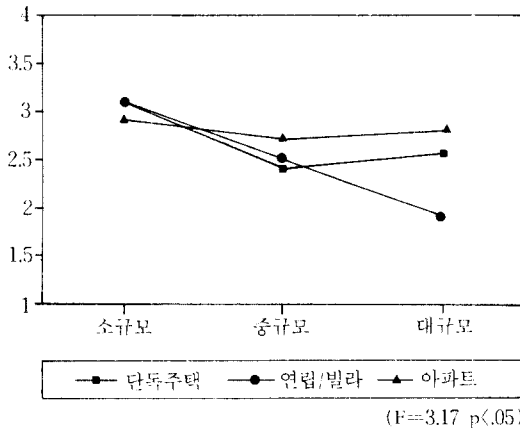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립 / 빌라에서는 대규모가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小規模에서는 아동실과 안방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大規模에서는 너무 멀어서 불만족하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대한 具體的인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도 항목에서는 주택유형과 주택규모 각각의 主效果가 발견되었다(표 4-2). 단독주택과 연립 / 빌라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만족도가 낮았고 소규모, 중규모 보다 대규모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아동의 물품, 장난감용품 등으로 인해 다른 生活週期보다 많은 수납공간이 요구되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아동을 養育하고 있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주거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각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된 결과 공통적으로 住宅規模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의 불만이 높은 것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각 주택유형별로 주택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因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항목별(아동실의 크기, 가족보임의 장소, 아동놀이의 장소, 아동실의 위치, 수납공간의 크기) 만족도와 조사대상 가구와 주택의 일반사항(식구수, 부모연령, 부모직업, 부모학력, 가구소득, 거주기간, 주택규모)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段階別分析方法에 의한 분석결과는 주택유형별로 유의적인 변수가 달리 나타났다(표 4-3).

주택유형별 주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그림 4-3〉 아동실 위치에 대한 만족도



〈표 4-2〉 수납공간의 크기에 대한 만족도

	Mean	S.D.	◎		Mean	S.D.	◎
단독 주택	2.88	1.01	A	소 규모	3.36	.87	A
연립/빌라	3.19	.87	A	중 규모	3.21	.97	A
아파트	3.28	.96	B	대 규모	2.72	1.02	B
F 값	9.15***			F 값	15.44***		

\*\*\* P&lt;.001 ◎ 사후검증(SCHEFFE 방식)에 의한 집단간의 차이 분석

〈표 4-3〉 주택유형별 주택 만족도의 회귀식

주택 유형	회귀식 ( $Y=A + B(\beta)X$ )
단독 주택 (Y <sub>1</sub> )	$Y_1 = .8021 + .2229(.2632)A_1 + .2596(.2936)A_2 + .2265(.2468)A_3$ $R^2 = .4079$ F=31.00 P<.001
연립/빌라 (Y <sub>2</sub> )	$Y_2 = .6051 + .5812(.5535)A_3 + .4079(.4047)A_4 - .1397(-.2652)B_1$ $R^2 = .5948$ F=23.49 P<.001
아파트 (Y <sub>3</sub> )	$Y_3 = 1.0411 + .1953(.2139)A_1 + .1134(.1304)A_2 + .2546(.2689)A_3 + .1393(.1742)A_5 - .1760$ $(-.2060)B_2$ $R^2 = .4049$ F=31.71 P<.001

■ A<sub>1</sub> : 아동놀이의 장소에 대한 만족도, A<sub>2</sub> : 아동실의 위치에 대한 만족도  
 A<sub>3</sub> : 가족모임의 장소에 대한 만족도, A<sub>4</sub> : 아동실의 크기에 대한 만족도  
 A<sub>5</sub> : 수납공간의 크기에 대한 만족도, B<sub>1</sub> : 거주기간, B<sub>2</sub> : 주택규모

으로는 단독주택은 아동놀이의 장소, 아동실의 위치, 가족모임의 장소에 대한 만족도로 설명변량은 40.8%로 나타났다. 연립/빌라는 가족모임의 장소, 아동실의 크기, 거주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설명력 59.5%). 아파트는 가족모임의 장소, 수납공간의 크기, 아동놀이의 장소, 아동실의 위치에 대한 만족도와 부적관계에 있는 주택규모로 나타났다. 즉 규모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다른 주택유형보다 규모에 민감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외부공간의 여유가 없는 아파트의 공간특성에 기인된다고 분석된다(설명력 40.5%).

이상과 같이 社會經濟的 變因과 물리적 주택변인이 분석에 투입되었는데 주택규모와 거주기간만이 유의적인 影響因子로 나타나 어머니의 주거만족도는 사회경제적 변인보다는 물리적인 주거환경변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의 연구결과는 아파트에 사는 주부가 단독

주택에 사는 주부보다 空間不足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다는 Duvall(198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活動 가능한 공간은 아동을 가진 주부에게 특히 意味가 있는데, 이는 그들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결과적으로 住環境에 의해 생기는 制約條件에 따라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4-2. 아동양육에 적합한 주택유형

주택유형이 아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遂行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아동양육에는 아파트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건축가는 실제의 아동양육에서 나타나는 주생활의 問題點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성인에게는 쾌적한 발코니가 아동을 가진 가정에서는 걱정스런 공간, 심지어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표 4-4〉 아동발달에 적합한 주택유형

적합한 주택유형 현 주택유형		N (%)					
		단독주택(1층)	단독주택(2층)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	빌라
『자녀의 건강』							
단독 주택	93(51.1)	78(42.9)	1(.5)	6(3.3)	2(1.1)	2(1.1)	
연립/빌라	32(47.2)	26(38.2)	2(2.9)	2(2.9)	2(2.9)	4(5.9)	
아파트	160(57.2)	77(27.5)	-	18(6.4)	12(4.3)	13(4.6)	
『자녀의 교육』		$\chi^2 = 29.31$ P<.001					
단독 주택	55(31.3)	72(40.9)	2(1.1)	14( 8.0)	31(17.6)	2( 1.1)	
연립/빌라	15(21.8)	22(31.9)	1(1.4)	6( 8.7)	18(26.1)	7(10.1)	
아파트	87(31.0)	79(28.1)	-	39(13.8)	69(24.6)	7( 2.5)	
『자녀의 정서생활』		$\chi^2 = 31.15$ P<.001					
단독 주택	71(40.6)	82(46.8)	3(1.7)	11(6.3)	4(2.3)	4(2.3)	
연립/빌라	33(47.9)	24(34.8)	1(1.4)	3(4.3)	2(2.9)	6(8.7)	
아파트	152(54.3)	99(35.4)	-	10(3.5)	7(2.5)	12(4.3)	
『자녀의 사교성』		$\chi^2 = 19.49$ P<.05					
단독 주택	37(21.3)	37(21.3)	7( 4.0)	37(21.3)	52(29.8)	4(2.3)	
연립/빌라	10(14.9)	9(13.4)	7(10.4)	13(19.5)	24(35.8)	4(6.0)	
아파트	68(24.5)	42(15.2)	5( 1.8)	52(18.8)	104(37.5)	6(2.2)	
		$\chi^2 = 21.56$ P<.05					

兒童發達를 4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발달에 가장 적합한 주택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표 4-4).

아동의 身體的, 情緒的 發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는 단독주택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80-90%) 아동의 社會性 발달에는 아파트가 적합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聯立住宅은 認識度<sup>3)</sup>가 매우 낮았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편이 더욱 그러한 태도를 보여 우리나라에서 연립주택의 의미를 認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는 아파트가 부적합하다는 反應이 뚜렷했는데 이는 아동은 '홀'과 함께 자라나야 情緒的 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결과는 Michelson(1970)의 토론토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90%가 아동을 양육하고 프라이버시를 확

보할 수 있는 最適의 場所로서 單獨住宅을 선택하였고 자녀가 있는 부부들이 거의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移住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특히,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머니는 2층형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머니는 1층형 단독주택이 자녀의 교육과 정서적 발달에 적합한 주택유형이라는 응답 결과에서 아파트의 어머니가 地面에 대한 認識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4-3. 아동실에 대한 인식

아동에게 있어 가정은 최초의 환경으로 만약 住居條件이 아동에게 적합하지 못하다면 아동은 社會生活에 필요한 行動基準을 배우지 못하며 올바른 성장이 불가능하다. 아동실은 아동의 全人的 發達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므로 아동실이 수용해야 할 기능은 다양해야 한다. 어머니가 아동실을 설치하는 목

3) 표 4-4에서와 같이 아동양육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연립주택이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4-5〉 아동실 활용정도

	충분히 활용한다	보통이다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chi^2$ 값
남 자	45.1(128)	40.8(116)	14.1(40)	$\chi^2 = 13.94$ P < .01
여 자	60.2(156)	29.3( 76)	10.5(27)	

적에 따라 아동실의 遂行機能은 달라질 것이다.

아동실 設置意圖는 아동의 독립심을 기르고(43.0%, N=232) 학습분위기를 위해서(34.6%, N=187)가 77.6%나 차지하고 있으며 놀이 및 정서생활을 위해서(8.6%, N=47),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5.2%, N=28), 부부의 프라이버시 보호(5.6%, N=30), 가족생활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3.0%, N=16) 순으로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가 아동실에서 수용되는 행위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택유형별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없이 공부(79.0%(N=42.9), 휴식이 6.8%(N=39), 혼자놀이가 3.3%(N=18), 친구와 교제가 10.9%(N=59)로 나타나 자녀의 교육을 중시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

아동이 아동실을 활용하는 정도에 대하여 어머니는 52.3%가 충분히 활용한다고 응답하였고 35.4%는 그저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12.2%의 어머니만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여 대체적으로 아동실의 사용을 肯定的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실 活用程度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가 발견되었는데 남자(45.1%) 보다는 여자(60.2%)가 충분히 활용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 $\chi^2=13.94$ , P < .05)

이와 관련하여 아동실 이용시간을 조사하였는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아동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고 활용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6〉

〈표 4-6〉 아동실 이용시간

	Mean	S.D.	t 값
남 자	3.07	1.04	2.39 P < .05
여 자	3.29	1.13	

#### 4-4. 兒童의 住生活行態에 대한 認識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아동의 주생활 행위공간은 주택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표 4-7). 단독주택의 경우 안방이나 아동실과 같은 個人室의 이용이 많은 반면, 아파트의 경우는 거실 / 마루나 부엌 / 식당과 같은 共同生活空間의 이용이 相對的으로 많았다. 특히 학습 / 취침행위는 독립변인에 따른 차이가 없이 아동실에서 일어나므로 아동실의 주요 행위로 아동실의 기능을 說明하고 있다. 또한 식사 행위, 가족단단행위, 휴식행위, 놀이행위 공간은 주택유형에 따른 空間機能의 特性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아파트의 경우 生活樣式의 立式化와 공간기능의 分化程度가 단독주택보다 높아 생활행위에 대응되는 공간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안방의 多用途性和 좌식생활 방식이 다양한 생활행위를 복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 / 빌라는 獨自의인 공간사용 특성을 보이지 못하고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이 주택유형의 역사가 짧아 이전의 住宅經驗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같은 분석내용에 의해 아동의 주생활 행위를 수용하는 공간은 주택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이에 따라 물리적 주거환경이 아동의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이 아동실외에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은 주택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단독주택)연립 / 빌라)아파트 순으로 안방이 많이 차지했고 아파트)연립 / 빌라)단독주택 순으로 거실 / 마루라는 응답이 支配的이었다(표 4-8).

어머니가 아동과 對話를 나누는 공간은 주택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단독주택에서는 안방, 거실 / 마루, 아동실의 순으로 다른주택유형보다 個人室의 이

〈표 4-7〉 주택유형별 아동의 주생활 행위공간

주공간 주행위	거실/마루			안 방			다른식구방			아 동 실			부엌/식당			바 당			χ²(d.f.)
	단 독	연립 / 빌라	아 파 트	단 독	연립 / 빌라	아 파 트	단 독	연립 / 빌라	아 파 트	단 독	연립 / 빌라	아 파 트	단 독	연립 / 빌라	아 파 트	단 독	연립 / 빌라	아 파 트	
아침 식사	11.2	7.2	5.6	13.5	2.9	1.0				2.8	-	1.0	72.6	89.9	92.3				44.98(8)***
독 서	12.6	7.1	27.1	6.3	2.9	3.2	2.3	1.4	.7	78.9	87.1	68.7	-	1.4	.4				28.94(8)**
휴 식	58.3	65.2	82.3	13.1	14.5	5.3	1.1	1.4	-	22.9	18.8	12.0				4.6	-	.4	43.17(8)***
공부/숙제	4.0	1.4	4.6	2.3	2.9	1.1	1.7	-	-	92.1	94.3	93.3	-	1.4	1.1				11.12(8)
혼자 놀이	17.5	14.9	28.6	2.9	3.0	1.1	-	3.0	-	71.3	77.6	68.6				8.2	1.5	1.8	36.71(8)***
친구 놀이	12.8	22.4	22.2	1.2	3.0	1.8				58.7	52.2	67.5	.6	-	-	26.7	22.4	8.5	34.35(8)***
간 식	26.6	27.9	30.6	9.8	4.4	.7				10.4	7.4	6.4	53.2	60.3	62.3				25.47(6)**
음악 감상	42.9	55.2	71.3	16.7	10.4	5.0	4.8	3.0	1.8	35.7	31.4	21.9							40.29(6)***
가족 대화	54.8	73.9	83.9	37.3	18.8	10.5	.6	-	.4	1.7	1.4	.4	5.6	5.8	4.9				53.76(8)***
TV 시청	43.8	68.6	84.5	50.6	27.1	13.7	1.7	-	.4	4.0	4.3	1.4							86.16(6)***
저녁 식사	12.4	13.0	8.7	15.3	10.1	3.5							72.3	76.8	87.8				23.90(4)***
취 침	1.1	-	1.0	11.9	14.5	11.2	2.8	-	1.4	84.2	85.5	86.4							3.98(6)

\*\* P < .001      \*\*\* P < .0001      (%)

〈표 4-8〉 아동실외에 오래 머무르는 공간

	거실/마루	안 방	다른식구방	부엌/식당	기 타	χ² 값
단독 주택	74(40.0)	84(45.4)	13(7.0)	6(3.2)	8(4.4)	χ² = 106.43 P < .001
연립/빌라	48(69.6)	16(23.2)	2(2.9)	2(2.9)	1(1.4)	
아 파트	246(84.9)	34(11.7)	5(1.7)	4(1.4)	1(.3)	

N (%)

〈표 4-9〉 주택유형별 어머니와 아동의 대화공간

	거실/마루	안 방	아 동 실	부엌/식당	χ²의 값
단독 주택	46(27.1)	57(33.5)	42(24.7)	25(14.7)	χ² = 60.56 P < .001
연립/빌라	27(43.5)	10(16.2)	9(14.5)	16(25.8)	
아 파트	142(55.0)	23( 8.9)	41(15.9)	52(20.2)	

N (%)

〈표 4-10〉 아동성별에 따른 집안일 선호유형 비교

	설거지	식탁준비	청 소	세 탁	심부름	없다	χ² 값
남 자	9.1	7.8	13.5	1.1	47.9	20.6	χ² = 81.31 P < .001
여 자	29.2	24.1	5.4	1.6	28.8	10.9	

(%)

용이 많은 반면 연립 / 빌라와 아파트에서는 거실 / 마루, 부엌 / 식당으로 나타나 주택유형간의 차이가 확실했다(표 4-9).

아동이 집안일을 돕는 것을 가족간의, 특히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住空間 使用와 住居 満足度에도 영향을 준다. 아동이 좋아하는 집안일에 대한 어머니의 응답이 아동의 性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표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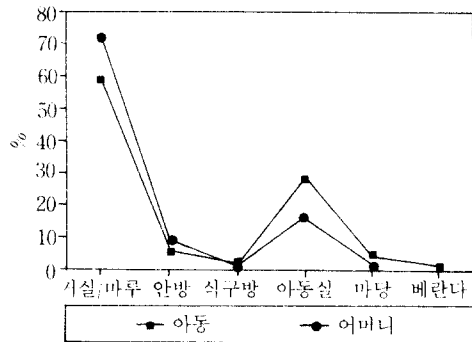
남자는 심부름을 가장 좋아하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 싫다는 응답도 20.6%가 되는 반면 여자는 주로 부엌 / 식당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와의 交流의 量과 空間이 남자와 다름을 알 수 있다.

4-5. 兒童의 住生活 行態에 대한 어머니와 兒童의 視角的 差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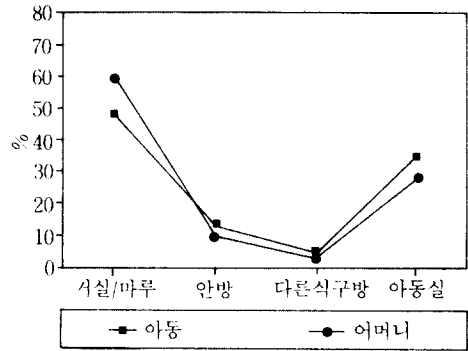
前節까지의 조사결과는 아동양육 측면에서 어머니가 주거공간의 적합성에 대해 평가한 내용들이다. 본절에서는 아동이 직접 응답한 아동의 주생활 행태와 어머니의 立場에서 아동의 주생활 행태를 認識하는 程度를 파악하여 比較·分析함으로써 아동의 주생활 행태에 대한 성인과 아동의 視角差를 糾明하고자 한다.

아동의 住生活 行爲의 對應空間에 대한 조사에서 식사행위, 가족단행위와 학습 / 취침행위 공간에 대해서는 아동과 어머니의 응답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휴식행위와 놀이행위 공간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견되었다(그림 4-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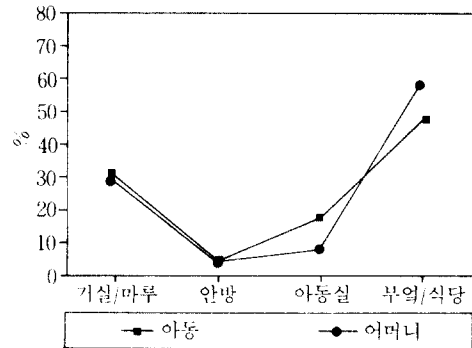
(그림 4-4) 휴식공간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응답비교



(그림 4-5) 음악감상공간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응답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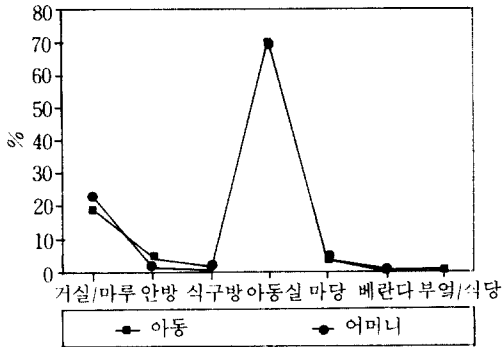
(그림 4-6) 간식공간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응답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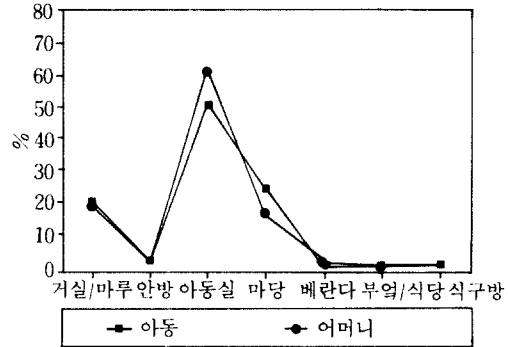
休息行爲 중 휴식과 음악감상 공간에 대해서 어머니는 아동이 거실 / 마루를 이용한다고 應答한 比率이 아동보다 많았고 이에 비례하여 아동실 이용은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間食空間에 대해서는 부엌 / 식당을 이용한다는 反應이 어머니의 응답결과에서 많이 발견됨으로서 어머니가 아동의 휴식행위 공간으로 아동실 보다는 共同生活空間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놀이행위 공간으로는 휴식행위 공간과는 반대로 兒童室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아동에 비해 相對的으로 높았다. 이와같은 놀이행위 공간에 대한 아동의 응답결과를 보면 놀이행위 공간의 分布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놀이행위를 아동실이 收容해야 할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아동은 집안 전체를 놀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차이를 발견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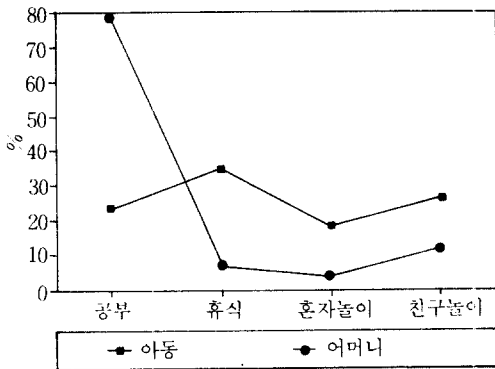
〈그림 4-7〉 혼자놀이공간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응답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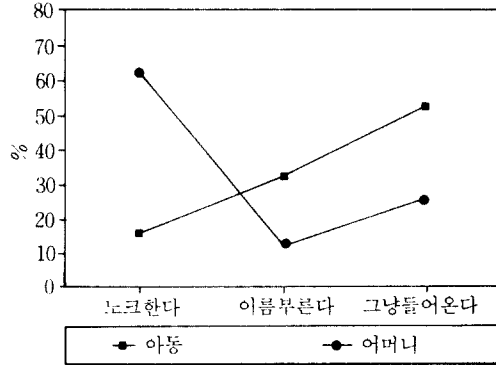
〈그림 4-8〉 친구놀이공간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응답비교



〈그림 4-9〉 아동실의 중요기능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응답비교



〈그림 4-10〉 아동실 출입형태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응답비교



한편, 아동실이라는 兒童空間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와 이 공간의 實使用者인 아동의 생각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그림 4-7).

어머니가 아동실이 수용해야 할 기능 중 兒童의 教育을 절대적으로 重要時 한 반면, 아동의 입장에서는 위의 4가지 기능이 고르게 수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한편, 아동실 出入形態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아동과 어머니간의 아동실 프라이버시 보장에 대한 認識差는 매우 명확했다.(그림 4-10).

즉, 아동은 어머니의 아동실 出入形態로 그냥 들어온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어머니측에서는 노크를 하고 들어간다는 反應을 보여 아동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아동의 입장에서는 그

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6. 요약

##### 1) 아동양육과 주거공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는 주거의 기능중 便利性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택의 만족도는 주택 유형과 주택의 규모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규모가 클수록 만족도는 높으나 같은 규모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의 반응이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주택 유형에 거주하는 어머니보다 規模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兒童養育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는 身體的, 知的, 情緒的 발달에는 단독주택이, 社會的 발달에는 아파

트가 適合하다는 어머니의 인식내용이 導出되었다.

### 2) 아동실에 대한 인식

어머니는 아동의 獨立心을 기르고 學習雰圍氣를 위해서 아동실을 설치한다는 응답결과가 나타나 아동의 知的發達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아동의 공간사용방식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집안일을 통한 어머니와의 交流의 양과 교류공간이 상이할 뿐 아니라 주택유형과 연령에 따라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 다르게 나타났다. 아동실 사용방식도 여자가 남자보다 충분히 활용하는 것으로 어머니편에서는 평가하였다.

### 4) 아동의 주생활 행태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시각적 차이

아동의 휴식행위 공간으로 거실 / 마루를 이용한다는 어머니의 응답이 아동보다 많았고 놀이행위 공간으로는 아동실의 사용을 응답한 비율이 아동보다 많음으로 인해 아동의 행위공간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認識差가 발견되었다.

아동실의 役割에 대해 어머니는 教育을, 아동은 공부, 휴식, 놀이의 기능을 고르게 중시하는 차이를 보였다.

## V. 결 론

주거공간에서 兒童養育에 대한 어머니의 要求가 充足되면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주생활 행태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兒童空間造成에 대한 意圖은 아동의 공간사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주거공간과 아동의 주생활 행태에 대한 평가결과는 주거계획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아동의 住生活行態에서 도출된 결과와 함께 複合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便利性이 아동양육기의 주부가 認知하는 주거의 주요기능으로 나타나 이 시기의 가정은 心理的 要求

보다는 物理的 機能의 충족을 더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양육에 아파트의 空間構成과 環境特性이 부적합하다는 평가는 초등교육기 가정의 生活特性인 아동놀이, 수납공간, 아동실 크기에 대한 要求를 주거계획에, 특히 아파트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주거만족도는 住宅規模에 가장 민감했으며 같은 규모의 경우 아파트에 居住하는 어머니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또한 아동발달에 적합한 주택유형에 대해 身體的, 知的, 情緒的 發達에는 단독주택이, 社會的 發達에는 아파트가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편리성의 水準을 높인 單獨住宅이 어머니가 아동양육과 아동발달에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주택유형으로 판단된다.

아동의 주생활 행위공간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認識差에서 어머니는 受動的인 휴식행위는 가족공동 공간에서, 能動的인 놀이행위는 아동실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수용되기를 원하나 아동은 집안 전체의 環境의 刺戟을 놀이의 素材로 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실의 役割에 대해 어머니는 教育을, 아동은 공부, 휴식, 놀이의 기능을 고르게 중시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지적 발달 추구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고르게 이루는 아동의 全人的 발달과 아동의 주생활 행태에 부응하는 주거공간계획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認識變化와 이에 따른 空間造成이 要望된다. 이와 連繫하여 아동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간의 인식차도 더불어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次世代의 主役에 대한 걱정한 住環境 提供은 물론 이들의 成人期에서의 주환경 조성을 준비할 수 있는 未來志向의 研究가 될 수 있으며 연구 결과는 앞으로의 주생활에 副應하는 새로운 주거계획에 基礎資料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경희(1979). 아동과 주택형성 : 생태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아동, 연세대 아동학과, 86 - 102.
- 2) 김재은(1980). 아파트에서의 어린이의 성장과 교

- 육, 주택, (39), 141 - 146.
- 3) 민영순(1990). 발달심리학, 교육출판사.
  - 4) 백운학 譯(1987). Thomas R.M. 著. 아동발달의 제이론, 교육과학사.
  - 5) 윤복자 외 3인(1983). 어린이의 주생활, 연세대 출판부.
  - 6) 이양자(1983). 주거형태에 따른 아동의 행동양식과 가족과의 관계,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이은혜(1987). 아동 연구 방법, 교문사.
  - 8) 임미숙(1992). 주거유형에 따른 아동의 주생활 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임미숙, 이경희(1991). 건축공간과 아동행태,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10) 장영애(1987). 아동의 가정환경과 발달특성간의 인과모형 분석,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최효선(1978). 각 계층별로 본 아파트 아동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한순옥(1988).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및 사회인지적 요인들, 대한가정학회지, 26(3), 243 - 253.
  - 13) Altman I., Christensen K.(1990). *Environment and Behavior Studies: emergence of intellectual traditions*, Plenum Press.
  - 14) Altman I., Wohlwill J.F.(Eds.)(1978). *Children and the Environment*, Plenum Press.
  - 15) Anthony K.H., Weidemann S., Chin Y.(1990). Housing Perceptions of Low - Income Single Parents, *Environment and Behavior*, 22(2), 147 - 182.
  - 16) Bechtel R.B., Marans R.W., Michelson W.(Eds.)(1987). *Methods in Environmental and Behavioral Research*, Van Nostrand Company Inc.
  - 17) Chawla L.(1991). Homes for Children in a Changing Society, in Zube E.H., Moore G.T. (Eds), *Advances in Environment, Behavior and Design*, Vol.3, Plenum Press.
  - 18) Duvall D.(1981). Differential Effects of Apartments and Single Homes on Women with Young Children, *Ekistics* 287, 166 - 175.
  - 19) Franck K.A.(1985). New Households, Old House : designing for changing needs, *Ekistics* 310, 22 - 27.
  - 20) Friedman W.J.(1990). Children's Representations of the Pattern of Daily Activities, *Child Development* 61, 1399 - 1412.
  - 21) Hart R.(1979). *Children's Experience of Place*, Irvington.
  - 22) Heimstra Mcfarling L.H.(1978). *Environmental Psychology*, Brook / Cole Publishing Co.
  - 23) Inman M.(1987). Family Stress in the Interior Living Environment Related to the Number of Bathroom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1), 103 - 108.
  - 24) Lawrence R.J.(1987). What Makes a House a Home?, *Environment and Behavior* 19(2), 154 - 168.
  - 25) Michelson W.(1970). *Man and His Urban Environment: a sociological approach*, Addison - Wesley.
  - 26) Michelson W. & Michelson E.(1980). Managing Urban Space in the Interest of Children : dimensions of the task, *Ekistics* 281 : 88 - 92.
  - 27) Moore G.T.(1982). *Some Effects of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al Variables on Children's Behavior*, Ph.D. dissertation, Clark University.
  - 28) Parke R.D., Sawin D.B.(1979). Children's Privacy in the Home : developmental, ecological, and child-rearing determinants, *Environment and Behavior*, 11(1), 87 - 104.
  - 29) Piaget J., Inhelder B.(1967). *The Child's Conception of Space*, W.W.Norton & Company, Inc.
  - 30) Sebba R., Churchman A.(1983). Territories and Territoriality in the Home, *Environment and Behavior*, 15(2), 191 - 210.
  - 31) Stewart W.F.R.(1970). *Children in Flats: a family study*, 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 Cruelty to Children.
- 32) Stokols D., Altman I.(Eds.)(1987). *Handbook of Environmental Psychology*, John Wiley & Sons, Inc.
- 33) Van Vliet W.(1980). The Environmental Content of Children's Friendship : an empirical and conceptual examination of the role of child density, *EDRA* 12, 216 - 224.
- 34) Van Vliet W.(1983). Families in Apartment Buildings : sad storeys for children?, *Environment and Behavior*, 15(2), 211 - 234.
- 35) Weinstein C.S, David T.G.(Eds.)(1987). *Spaces for Children : the built environment and child development*, Plenum Press.
- 36) Wohlwill J.F.(1980). The Confluence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 signpost to and ecology of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23, 354 - 358.
- 37) Wohlwill J.F., Vliet W.(Eds.)(1985). *Habitats for Children : the impacts of densit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